

<작은자공동체 신앙고백문> 초안

1. 우리 작은자공동체는, 세계와 사람을 만든 분으로서, 이 세계의 진보를 위해 우리와 함께 역사 속에서 해방활동을 하는 분으로서, 그리고 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 하는 분으로서, 우리의 구원과 세계 해방을 위해 역사 속에서 여러 모습으로 행하는 분으로서의 야훼 하느님을 믿습니다.
 2. 우리 작은자공동체는, 야훼 하느님께서 파라오의 압제 아래 신음하던 이민노예 히브리 민중과 함께 일으킨 출애굽 해방사건, 히브리민중이 가나안 토착민중과 연합하여 해방공동체를 세운 사건, 예수께서 갈릴리 민중과 하나가 되어 일으킨 예수사건이 '하느님나라 운동'이며 우리 민족의 동학혁명과 광주민중항쟁, 미국의 흑인해방운동 등 세계 곳곳의 '민중해방 운동'이 '하느님나라 운동'의 각 시 대적 실천 운동임을 고백합니다.
 3. 우리 작은자공동체는, 이 세계의 억압과 착취와 소외와 차별이 있는 어느 곳에서나, 비인간화의 현실을 변혁하려는 민중의 열망과 야훼 하느님의 해방하는 뜻이 어우러져 '하느님나라 운동'의 원천적 힘이 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4. 우리 작은자공동체는, 지난날 우리 이웃과 세계가 겪는 갖가지 비인간화의 현실에 대해 무관심했거나 방관해 온 죄, 그 현실을 극복하려는 노력에 소극적이었던 죄, 그러한 현실구조 속에 안주하거나 편승하여 이익을 취해 왔던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이 순간부터 그러한 죄를 회개 하며 하느님나라 운동에 참여하는 결의를 다짐합니다.
 5. 우리 작은자공동체는, 회개는 구체적으로, 고난 중에 있는 우리 이웃의 삶의 구원을 위한 일에, 우리 조국의 민주화, 자주화, 평화통일운동에, 그리고 이곳 미국과 세계 곳곳의 민중 해방운동에,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동참하는 실천으로 표현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6. 우리 작은자공동체는, 노동자, 빈민, 중산층, 청년, 학생, 지식인 중의 한 사람으로서 고난 중에 있는 사람, 소외된 사람, 자본주의와 제국주의 체제에 의해 수탈당하고 억압받는 사람, 이민노동자, 성적소수자, 소수일 망정 옳은 뜻을 견지하고 실천하는 사람 등이 '작은자'이며, 작은 양의 누룩이 온 빵을 부풀리게 할 수 있고, 작은 겨자씨가 나무로 자라 새들을 깃들이게 할 수 있고, 작은 불씨가 온 숲을 태울 수 있다는 믿음으로 작은자들이 주체가 되어 이끌어가는 하느님나라 운동에 따른 개인으로서, 때론 공동체로서 참여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우리의 공동체적 의지를 담아 우리 교회를 '작은자공동체'라 이름합니다.
 7. 우리 작은자공동체는, 우리 이웃종교들의 신앙을 진심으로 존중하며, 서로의 신앙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가르침을 서로 배우기를 원하며, 궁극적으로 고난 중에 있는 이웃을 돕고 이 사회와 세계의 정의와 평화를 실현하는 일에 이웃종교들과 연대하기를 원합니다.
 8. 우리 작은자공동체는, 공동체 안에서 '나눔과 친교'를 방해하는 이기심과 소유욕을 경계하며,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나누고 친교하며 나아가 이 세계에서 나눔의 실현을 저해하는 온갖 구조적, 제도적 장벽들과 맞서 싸우는 '나눔의 공동체'이기를 원합니다.
 9. 우리 작은자공동체는, 공동체 안에서 '섬김과 일치'를 방해하는 지배와 권력에 대한 욕망을 경계하며, 섬김과 일치를 저해하는 온갖 장애를 극복하기 위하여 우리 공동체를 운영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체가 되어 공동으로 토의, 평가, 실행 하는 민주적 의사결정의 전통을 세워 나가고 나아가 이 사회와 세계의 구성원 모두가 동등한 주인으로 살아가는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민주화된 사회와 세계의 실현을 위해 일하는 '섬김의 공동체'이기를 원합니다.
 10. 우리 작은자공동체는, 야훼 하느님의 생명의 기운과 해방하시는 능력이 내 자신과 우리 공동체 가운데 살아 숨쉬어 말씀과 깨달음, 기도와 명상, 춤과 노래, 학습과 실천으로 우리의 삶을 근원적으로 변화시켜가고 생명의 힘이 넘치게 하는, 살아있는 '예배공동체' 이기를 원합니다.
 11. 우리 작은자공동체는, 하느님께서 우리들을 사랑에 기초한, 서로 나누고 서로 섬기고 서로 살리는, 나눔의 공동체, 섬김의 공동체, 예배의 공동체인 '작은자공동체'에 불려주시고 한 신앙공동체의 지체가 되게 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12. 우리 작은자공동체는, 온 성원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드리는 이 신앙고백이, 우리 자신과 사회와 세계의 변화하는 역사적 현실 안에서, 우리 자신 및 공동체의 삶과 신앙이 성숙해감에 따라서, 수정되고 보완되어 점점 풍부하게 될 열려진(opened-end) '신앙고백'임을 하느님 앞에서 서로에게 약속합니다.
- 분단 65년, 광주민중항쟁30주년, 6.15공동선언10주년이 되는 2010년 6월 20일,
작은자공동체 첫 예배에서 작은자공동체 가족일동

하늘뜻사람사랑 06-20-10-1

창립예배 작은자공동체

The Least of These Church



일시: 2010년 6월 20일 (주일) 오후3시
장소: 저드슨메모리얼교회, 가든룸

모이는곳: Judson Memorial Church, Garden Room (3pm)
55 Washington Square South
New York, NY 10012

섬기는이: 공동체 가족과 김동균 목사(Rev. Tong-Kyun Kim)
tongkyun@gmail.com / 917-622-2471

사람 뜻 올리기 - 전국재님

하느님,

이제 우리가,
믿음과 사랑과 하느님의 뜻을 지향하는 공동체를 시작 하려 합니다.

우리 자신에게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도,
하느님의 깊은 사랑과 하느님의 정의가 너무도 필요합니다.

하느님의 옳으신 뜻대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며 올바르게 살아가고 싶으나
내 안의 이기성으로 인해, 그리고 세상 안의 팽배한 약육강식의 법칙으로 인해
하느님의 옳은 뜻을 행하기 어렵고 서로를 사랑하기가 너무도 어렵습니다.
능력 있고 돈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지키고 더 갖기 위해,
능력이 부족하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해,
점점 더 이기적이 되고 불의에 눈감고 불의에 동참하고
심지어 불의를 저지르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점점 더
하느님의 사랑과 하느님의 정의에서 멀어져 가며 살아가게 됩니다.
혼자로는 어떻게 해 볼 도리가 없어 그런 우리를 합리화하며 살아갑니다.

하느님,
두 사람이 뜻을 모아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룬다 하셨기에,
두 세 사람이 하느님의 뜻에 따라 모인 곳에는 함께 하신다 하셨기에,
그리고 겨자씨 만한 믿음으로도 산을 옮길 수 있다 하셨기에,
지금 비록 우리 소수이지만,
지금 우리의 믿음, 우리의 용기 겨자씨만큼이지만,
이 뜻을 모아, 이 믿음을 모아,
사람들이 계란으로 바위치기라 염려하더라도
이 뜻, 이 믿음을 버리지 않고 지키며 행하려 합니다.

그 겨자씨 만한 믿음으로,
내 안에 깊이 자리하고 있는 이기심의 산을 옮기고
이 사회 안에 구조화 되어 있는 불의와 악의 산을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 부족함을 도와 주시고 굳건히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고와 무거운 짐으로 지친 우리들도,
수고와 무거운 짐에 지친 많은 이들도,
이들을 돕다가 지친 하느님의 일꾼들도 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러한 길을 걸어 갈 때,
비록 넘어지고 지치고 실패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그 길을 계속해서 함께 가는
믿음의 동지들 되게 하옵소서.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바울선생의 깨달음처럼
하느님의 깊은 사랑에 단단히 기초하여,
진심으로 서로 나누고 진심으로 서로 섬기고 진심으로 서로 살리는
나눔과 섬김과 생명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성서의 모든 가르침은
결국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가르침에 다 들어있다는 말씀대로
진심으로 하느님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작은자공동체가 첫 걸음을 떼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이들과 우리 공동체 안에 그리고 이 땅 위에
하느님의 축복과 평화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2,1-12 (공동번역)- 가나안 혼인잔치 포도주사건

:1 이런 일이 있던 지 사흘째 되던 날 갈릴래아 지방 가나에 혼인 잔치가 있었다. 그 자리에는 예수의 어머니도 계셨고 :2 예수도 그의 제자들과 함께 초대 를 받고 와 계셨다. :3 그런데 잔치 도중에 포도주가 다 떨어지자 예수의 어머니는 예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알렸다. :4 예수께서는 어머니를 보시고 "어머니, 그것이 저에게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러십니까? 아직 제 때가 오지 않았 습니다." 하고 말씀하셨다. :5 그러자 예수의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무엇이든 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하고 일렸다. :6 유대인들에게는 정결 예식을 행 하는 관습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그 예식에 쓰이는 두세 동이들이 돌항아리 여섯 개가 놓여 있었다. :7 예수께서 하인들에게 "그 항아리마다 모두 물을 가득히 부어라." 하고 이르셨다. 그들이 여섯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자 :8 예수께서 "이제는 퍼서 잔치 말은 이에게 갖다 주어라." 하셨다. 하인들이 잔치 말은 이에게 갖다 주었더니 :9 물은 어느새 포도주로 변해 있었다. 물을 떠간 그 하인들은 그 술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고 있었지만 잔치 말은 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술맛을 보고 나서 신랑을 불러 :10 "누구든지 좋은 포도주는 먼저 내 놓고 손님들이 취한 다음에 덜 좋은 것을 내놓는 법인데 이 좋은 포도주가 아직까지 있으니 웬일이요!" 하고 감탄하였다. :11 이렇게 예수께서는 첫 번째 기적을 갈릴래아 지방 가나에서 행하시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그리하여 제자들은 예수를 믿게 되었다. :12 이 일이 있던 뒤에 예수께서는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파르나움에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머물러 계시지는 않았다.

요한복음 2,13-22 (공동번역) - 성전숙청사건

:13 유대인들의 과월절이 가까워지자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14 그리고 성전 뜰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장사꾼들과 환금상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15 밧줄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를 모두 쫓아내시고 환금상 들의 돈을 쏟아버리며 그 상을 둘러엎으셨다. :16 그리고 비둘기 장수들에게 "이것들을 거두어가라. 다시는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하고 꾸짖으셨다. :17 이 광경을 본 제자들의 머리에는 하느님이시여, 하느님의 집을 아끼는 내 열정이 나를 불사르리이다.' 하신 성서의 말씀이 떠올랐다. :18 그 때에 유대인들이 나서서 "당신이 이런 일을 하는데, 당신에게 이 려 권한이 있음을 증명해 보시오. 도대체 무슨 기적을 보여주겠소?" 하고 예 수께 대들었다. :19 예수께서는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사울 안에 다시 세 우겠다." 하고 대답하셨다. :20 그들이 예수께 "이 성전을 짓는 데 사십육 년이 나 걸렸는데, 그대 당신은 그것을 사흘이면 다시 세우겠단 말이요?" 하고 또 대들었다. :21 그런데 예수께서 성전이라 하는 것은 당신의 몸을 두고 하신 말 씀이었다. :22 제자들은 예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뒤에야 이 말씀을 생각 하고 비로소 성서의 말씀과 예수의 말씀을 믿게 되었다.



521

어느 민족 누구게나



Capo=1st
J. R. Lowell, 1845

TON-Y-BOTEL: 8.7.8.7.D.
T. J. Williams, 1890

보통으로 ♩=80

Em 3 B C Am6 B7 3 Em G D 3 C B7 Em Am Am7 B7 Em

1.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 할 때 있 나니
2. 고상 하고 아름답 다 진리 편에서 는 일
3. 순교 자의 빛을 따 라 주의 뒤를 좇 아서
4. 아이 비록 성 하 여 도 진리 더 옥장 하다

3 B C Am6 B7 3 Em G D 3 C B7 Em Am Am7 B7 Em

참과 거짓 싸울 때 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진리 위해 억압 받고 명예 이 잃 어도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앞만 향 해 가 리라
진리 따라 살 아 갈 때 어려 움도 당 하리

G 3 Dsus4 D Em 3 Bsus4 B Em Em7 3 Am7 D Em Em7 Am7 B

주가 주신 새 목 표가 우리 앞에 보 이 니
비겁 한 자 물러 서 나 용감 한 자 굳 세 게 니
새시 대는 새 의 무를 우리 에게 주 나 니
우리 가는 그 앞 길 에 어둔 장막 덮 처 도

Am Em 3 B C Am6 B7 3 Em G D 3 G D G Am Am7 B7 Em Am E

빛과 어둠 사 이 에서 선택 하 며 살 리라
낙심 한 자 돌아 오 는 그날 까 지 서 리라
진리 따라 사 는 자 는 전진 하 리 언 제나
하나 님이 함 께 게 서 항상 지 켜 주 시리 아 멘



바위처럼(민중의노래)

C Dm7 G C

바 위 처 럼 살 아 가 보 자 - 모 건

F G C

비 바람 이 몰 아 친 대 도 - 어 편

F G C Em Am

유 목 의 손 길 에 도 흔 들 림 없 는 바 위

F G C

처 럼 살 자 꾸 나 - 바 람

Am Em F

예 흔 들 리 는 건 - 뿌 리

C Am G

가 얇 은 갈 대 일 뿐 - 대 지

F G C Em Am

에 깊 이 - 박 힌 처 바 위 는 굳 세

F Dm7 G

게 도 서 있 으 니 - 우 리

C Am7 F G

모 두 절 망 에 굴 하 지 않 고 시 련

C Am7 F G

속 에 자 신 을 깨 우 처 가 며 마 침

F G C Em Am

내 을 해 방 세 상 주 쫓 들 이 될 바 위

F G C

처 럼 살 자 꾸 나

작은자공동체 창립예배

2010년 6월 20일(주일) 오후 3시
저드슨메모리얼교회 가든룸

사회: 김동균 목사

묵연의 기도		다함께
한마음 한노래 (찬송)	“어느 민족 누구게나”(찬송가)	다함께
사람 뜻 올리기 (기도)		전국재님
하늘 뜻, 사람 뜻 나누기(설교)		문동환 목사님
	요 2,1-12 (낭독- 강창환님) / 요2,13-22 (낭독- 홍태연님) “예수님의 하느님나라운동”	
이웃종교인과 활동가의 연대의 말씀	Rev. Donna Schaper (Judson Church) 김형근선생 (불교) 강병철님(활동가)	
신앙고백문 낭독	<작은자공동체신앙고백문>	정지현님, 장동인님
한마음 한노래 (찬송)	“바위처럼”(민중의 노래)	다함께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기도		김동균목사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기도 - 김동균 목사

하느님,
이제 우리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가진 자들의 횡포와 착취가 만연하고
그것이 체제화되어 갖가지 악과 범죄가 만연하여 힘없는 이들은 무방비로
노출되어 그러한 악과 범죄에 피해자로, 방관자로, 가해자로 살아갈 수 밖에
없게 하는 그러한 세상으로, 내 안에도 있는 이웃에 대한 무관심, 자기중심적
인 태도, 가식, 거짓, 질시, 욕심, 욕망, 교만, 악한생각 등이 난무하는 그러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그러한 세상이 우리를 절망케 하고 슬프게 하지만,
때론 그런 내 자신과 세상의 모순을 무시하고 포기하게 하지만
그러나 하느님,
그런 내 자신과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희망과 믿음을 주옵소서
그런 내 자신과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주옵소서
그런 내 자신과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주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런 내 자신과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고 결국 하느님의 진리와 정의가 승리한다는
믿음을 행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느님,
그러다 우리가 유혹과 욕심에, 때론 시련과 한계에 부딪혀 실패하거나
꺼져가며 연기 피우는 등불의 심지도 끄지 않으시고 불길을 다시 살리신다는
그런 당신의 사랑에 의지하여 청하오니 우리를 다시 용서하시고 다시 힘을
주옵소서

우리 서로 간에, 또한 고난 속에 있는 이웃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며 필요한 것들을 서로 채워주고
보살핌의 수고를 기꺼이 하는 그런 사랑을 행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서로가 삶의 희망을 잃지 않도록
격려하고 위로하며 서로의 희망을 나누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 뒤에는 우리 서로가 든든히 버티고 있음을,
그런 우리 뒤에는 하느님이 든든히 버티고 계심을,
그러한 든든함 믿음으로 세상에 나아가
힘있게 사랑하고 기쁘게 희망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